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융합적 관계

이미라

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The Convergence Relationship on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dental hygiene students

Mi-Ra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치위생과 대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은 음의 관계($r=-.257$, $p<0.01$)를 나타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은 양의 관계($r=.426$, $p<0.001$)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감정노동과 학과만족도였다. 설명력은 19.4%의 영향력을 보였다.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임상실습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감정노동, 임상실습 스트레스, 치위생과 학생, 학과만족도, 회복탄력성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resilienc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i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e stres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on 165 students of Chungcheong Province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18.0 statistics program.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r=-.257$). An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emotional labor ($r=.426$). Factors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stress were emotional labor and major satisfaction.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clinical practice education programs to reduce emotional labor experienced in clinical practice and improve resilience to reduce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Key Words :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stress, Dental hygiene student, Major satisfaction, Resilience

1. 서론

최근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구강보건전문가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강건강에 필

요한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를 배출하기 위한 지식, 기술과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전국대학의 치위생(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치위생학 교육은 치과위생사가 임상현장 활동에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으로 치과위생사가 습득한

*Corresponding Author : Mi-ra Lee(lmr3500@hanmail.net)

Received January 12,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1

Revised February 6,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1

지식 및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임상실습 경험이 필요하다[1]. 임상실습은 치위생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를 직접 접하는 교과목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키고, 진료과별 업무에 필요한 개념습득이 이루어진다[2].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역할인식, 의료팀 간의 협조도 및 학습 이해력 향상으로 구강보건 교육 및 치과진료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3].

하지만 3년 안에 이론과 실습을 마쳐야하는 교과과정을 가진 전문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은 이론적 확립이 완성되기 전에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4]. 임상실습 기간에 학생들은 학교와 다른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의료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환자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실습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5]. 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혼란, 두려움 및 역할 모호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환경과 능동적 실습태도는 실습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진행되게 된다[6].

임상실습 스트레스란 학생이 경험하는 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 원인으로 혼란, 불안 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된다[7]. 이와 같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장기간 지속되면 학생들은 학과만족도가 감소하게 되고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결국 중도포기 등 대학생활을 지속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임상현장에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며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항상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을 경험한다. 이러한 감정노동은 스트레스 증가와 직무소진, 직무만족도를 감소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학생들도 임상실습 동안 복잡한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관리하는데 이것을 감정노동이라고 한다[9]. 감정노동에 대한 학습 효과는 앞으로 교육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감정 관리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감정노동은 임상실습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10].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극복한 후에는 더욱 향상된

능력을 발휘하고,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대처나 능력이 떨어져, 스트레스 대처에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1].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곤경에 대한 정신적인 면역성, 정신적 저항력, 내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역경을 이겨내는 잠재적인 힘[12]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임상현장이라는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다[13]. 따라서 임상실습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들이 임상현장에서 적응도를 높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낮추면서 역경을 이겨내고 임상교육에 긍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실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치위생 학생들의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검증하여 학생들의 감정노동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다. 충청지역 3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수집 방법은 편의표본 추출하여 자기기입식 설문법을 작성한 후 회수하였다.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방법을 설명하고 서명동의서에 서명한 후 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 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감안하여 예측 변수 6개로 하였을 때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로 하여 G*Power version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146명의 표본수가 산정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해 180부를 배부하여 이 중 무성의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고 총 1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일반적 특성,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학년, 종교, 학점, 학과만족도, 실습기관 5문항을 포함하였다.

2.2.1 감정노동

Morris & Feldman의 감정노동 측정 도구를 연구 대상자에 적합하게 최종회의 척도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14,15]. 이 도구는 감정노동 빈도 문항 3개 문항, 감정표현 주의 정도 3개 문항, 그리고 감정 부조화 3개 문항 총 9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822이었다.

2.2.2 회복탄력성

양영희 등이 개발한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16]. 이 도구는 자신감요인 3문항, 관계성 요인 4문항, 긍정성 요인 4문항, 대처능력요인 2문항, 감정조절능력 요인 4문항, 사회적 지지 요인 4문항, 조직적 스타일 요인 3문항 등 총 7개 하위 영역 2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875이었다.

2.2.3 임상실습 스트레스

Beck과 Srivastava가 조사한 스트레스 자료를 기초로 연구대상자에 맞도록 염은희의 도구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17,18]. 이 도구는 하위 5개 영역으로 실습교육 환경 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 5문항, 실습업무 부담 4문항, 대인관계 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918이었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분석으로는 Scheffe를 이용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 중 3학년이 50.3%였고 2학년은 40.7%였다. 학점은 '중'인 경우가 49.7%로 가장 높았고 '상'인 경우 32.1%, '하'인 경우 18.2% 순이었다. 학과만족도는 '만족'이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 40.0%, '불만족'은 3.6%였다. 실습기관은 치과외원이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과병원 20.6%, 종합병원 3.6% 순이었다.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Table 2와 같다.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나타났고,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64점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56점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은 학점이 '하'인 경우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인 경우는 3.00점으로 나타났고 학과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 3.38점, '보통'은 3.24점, '만족'인 경우 3.00점으로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 3.44점으로 '보통' 2.72점, '만족' 2.40점 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3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r=-.257$, $p<0.01$)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r=.426$, $p<0.001$)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련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학년, 종교, 학점, 학과만족도, 감정노동, 회복탄력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정한 결과 1.99로 잔차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1.0-3.0 사이였고, 공차한계가 0.1이상이거나 VIF값이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고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모두 충족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하여

19.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고(F=7.565, p<.001), 감정노동(β =.384), 학과만족도(β =-.199)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정노동이었고 다음으로 학과만족도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65)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rade	2nd	82	40.7
	3rd	83	50.3
Religion	no have	124	75.2
	have	41	24.8
Academic score	Lower level (≤ 2.9)	30	18.2
	Middle level (3.0-3.9)	82	49.7
	High level (≥ 4.0)	53	32.1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ied	6	3.6
	Normal	66	40.0
	Satisfied	93	56.4
Practice organization	General hospital	6	3.6
	Dental hospital	34	20.6
	Dental clinic	125	75.8
Total		165	100

Table 2. Emotional labor,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Characteristics	Division	Emotional labor	p-value	Resilience	p-value	Clinical practice stress	p-value
		Mean±SD		Mean±SD		Mean±SD	
Grade	2nd	3.14 ± 0.62	0.538	3.61 ± 0.42	0.552	2.56 ± 0.81	0.906
	3rd	3.08 ± 0.64		3.67 ± 0.66		2.57 ± 0.75	
Religion	no have	3.11 ± 0.59	0.943	3.64 ± 0.54	0.950	2.57 ± 0.81	0.814
	have	3.11 ± 0.72		3.64 ± 0.58		2.54 ± 0.68	
Academic score	Lower level	3.33 ± 0.49 ^a	0.036 [*]	3.50 ± 0.51	0.146	2.83 ± 0.72	0.129
	Middle level	3.00 ± 0.68 ^b		3.63 ± 0.53		2.50 ± 0.82	
	High level	3.15 ± 0.58 ^{ab}		3.74 ± 0.55		2.52 ± 0.73	
Satisfaction of major	Dissatisfied	3.38 ± 0.43 ^{ab}	0.029 [*]	3.38 ± 0.63	0.065	3.44 ± 0.84 ^a	0.001 ^{**}
	Normal	3.24 ± 0.60 ^a		3.54 ± 0.54		2.72 ± 0.75 ^a	
	Satisfied	3.00 ± 0.64 ^b		3.73 ± 0.54		2.40 ± 0.75 ^b	
Practice organization	General hospital	2.98 ± 0.81	0.517	3.55 ± 0.66	0.921	2.80 ± 0.87	0.746
	Dental hospital	3.01 ± 0.50		3.64 ± 0.57		2.54 ± 0.83	
	Dental Clinic	3.14 ± 0.65		3.65 ± 0.55		2.56 ± 0.77	
Total		3.11 ± 0.62		3.64 ± 0.55		2.56 ± 0.78	

* : p<0.05, ** : p<0.01, ^{a,b}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Scheffe's test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labor,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N=165)

	Emotional labor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1		
Resilience	-.257 ^{**}	1	
Clinical practice stress	.426 ^{***}	-.143	1

** : p<.01, *** : p<.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for related factor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N=165)

Dependent variable	B	SD	β	t	p
Grade	.075	.111	.048	.680	.497
Religion	.034	.130	.019	.261	.794
Satisfaction of major	-.274	.107	-.199	-2.559	<.011
Academic score	-.029	.084	-.026	-.341	.734
Emotional labor	.480	.092	.384	5.215	<.000
Resilience	-.009	.104	-.007	-.090	.928
F=7.565(p<0.001), R ² =0.223, Adj R ² =0.194					

4. 논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19]. 임상실습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20].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감정노동의 정도,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치위생과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요인을 조사하여 양질의 임상실습 교육과정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3.11점이었다. 이는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연구한 남문희와 이미련의 연구결과 3.44점[21], 남문희와 김혜옥의 연구결과 3.2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22]. 간호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기관은 대부분이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으로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과의 만남과 동시에 환자 및 보호자를 상대할 기회가 많아 치위생과 학생들에 비해 감정노동 정도가 클 수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정희의 연구결과 3.37점보다 낮게 나타났다[15]. 과거 선행논문들의 임상실습기관은 주로 대학치과병원, 치과병원, 보건소 등 다양하여 간호과 학생들과 같이 비교적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실습기관은 치과의원이 75.8%로 병원급 실습기관이 과거에 비해 매우 적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방역문제로 학생들의 실습수용에 어려움을 토로하여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실습기관이 축소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소규모의 치과의원은 소수의 환자를 수용하고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실

습에 임하여 비교적 낮은 감정노동의 정도를 보였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정노동은 학점이 '하'인 경우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과 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 3.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학과에 만족하게 되면 학점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고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어 변화와 도전이라는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감정노동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회복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관련되었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감정노동을 경험하게 되면 입사 후 신규 치과위생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되고 실무 부적응과 조기이직을 예견하는 인식을 갖게 될 수 있고[23], 감정노동이 높은 경우 직업정체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15,21]. 따라서 치위생과 대학생의 바람직한 진로정체감 형성을 위해 임상실습 기간 중 감정노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 대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감정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선과 제도적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64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서영은 3.62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24]. 신미자와 전열어의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3.58점이었고[25], 백경화와 조미옥의 연구에서도 3.54점으로 본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26]. 신미자와 전열어는 임상수행 능력은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 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5].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면 임상수행 능력도 향상되어 원활한 임상실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감역량, 의사소통 교육 및 정서지능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이 추천된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56점이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 3.44점으로 '보통' 2.72점, '만족' 2.4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윤구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71점으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10]. 하지만 염은이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실습 스트레스는 3.65점으로 본 연구결과 보다 높게 나타났다 [18]. 같은 치위생과 학생을 연구한 민희홍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38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다. 하지만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할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27]. 심향순과 이향님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였고 [4], 김수경과 정유선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학과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28]. 대학생들이 학과 및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직업정체성이 확립되어 앞으로의 전공업무와 연관된 임상실습교육에 긍정적으로 임하게 되면 실습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임상실습 전 전공직업에 관한 윤리, 업무 등을 미리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하여 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해야 할 것이다.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r=-.257$)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r=.426$)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연구한 강서영도 감정노동은 회복탄력성($r=-.353$)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고,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교육환경이라고 하였다 [24]. 또한 이내영 등은 감정노동은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가($r=0.353$) 있다고 하였고 감정노동의 정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29]. 정은경은 치과위생사는 감정노동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하였고 [30], 이영수 등은 치과위생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지하는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 [8].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이 감정노동 증가로 직무스트레스 높

아지면 실습중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윤구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감정노동이 높고 실습 스트레스도 높다고 하였다 [10]. 이에 학교의 지도교수와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는 정기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실습환경에서 겪는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 조언함으로써 학생들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은 19.4%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정노동, 학과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연구한 염은이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의사소통능력이라고 하였고 특히 감정노동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18]. 감정노동의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였다. 이에 임상실습과정에서 감정노동 관리에 중점을 두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임상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치위생과 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 스트레스를 약간 가지고 있고 학과만족도가 높은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다. 또한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상관성이 있었으며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습기관에서는 실습학생이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습지도자는 학생들이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을 포함한 실습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실습 전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방법과 현장중심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학생과 기관이 동시에 만족할 있는 표준화된 실습매뉴얼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과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지 못해 실습기관에 한계를 보였다. 또한 3년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의견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추후 연구대상을 4년제 학제

학생들을 포함하여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관련 변수영역을 확대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과 대학생의 감정노동,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실습을 경험한 165명의 치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감정노동 3.11점, 회복탄력성 3.64점 그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2.56점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과 회복탄력성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감정노동과 학과만족도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이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력은 19.4%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치위생과 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직업윤리와 인성교육이 포함되고 감정노동 관리 및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1] B. Y. Won, G. W. Jang, M. Y. Hwang & J. H. Jang. (2016).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clinical practice and training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6), 993-1007.
DOI : 10.13065/jksdh.2016.16.06.993
- [2] I. S. Park & S. H. Lee. (2007).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clinical training according to dental hygienist duties.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7(4), 295-302.
- [3] J. S. Yang. (2000).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dental hospital by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4(3), 205-216.
- [4] H. S. Shim & H. N. Lee. (2014). Stress and coping of dental hygiene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4(2), 139-145.
DOI : 10.13065/jksdh.2014.14.02.139
- [5] M. W. Kim. (2003). A study on the factors for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mong physical therapist students. *The Res Dept. of physical therapy, Masan University*, 6, 177-196.
- [6] Y. O. Nam, J. H. Jang & S. S. Kim. (2002). Study on how to cope with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when performing str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2), 145-158.
- [7]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8] Y. S. Lee, J. H. Jang & A. E. Moon. (2011).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stress on job satisfaction in oral health profession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1(5), 823-831.
- [9] G. Msiska, P. Smith & T. Fawcett. (2014). Exposing emotional labour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their clinical learning experience: A Malawian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Africa Nursing Sciences*, 1, 43-50.
DOI : 10.1016/j.ijans.2014.07.001
- [10] Y. G. Noh. (2017).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3(5), 461-470.
DOI : 10.11111/jkana.2017.23.5.461
- [11] B. M. Gillespie, W. Chaboyer, M. Wallis & P. Grimbeek. (2007). Resilience in the operating room: Developing and testing of a resilience model.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9(4), 427-438.
- [12] J. H. Kim. (2011). *Resilience: pleasant secrets changing adversity into fortune* (Korean). Koyang: Wisdomhouse; 17-255.
- [13] J. W. Han. (2018). The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the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7(4), 5-27.
DOI : 10.35605/jss.2018.12.27.4.5
- [14] J. A. Morris & D. C. Feldman. (1996).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986-1010.
DOI : 10.2307/259161
- [15] J. H. Choi. (2018). Convergence factors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on professional identity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 Convergence Society*, 9(5), 99-104.
DOI : 10.15207/JKCS.2018.9.5.099
- [16] Y. H. Yang, E. M. Kim, M. Yu, S. M. Park & H. Y. Lee. (2015).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27(3), 337-346.
DOI : 10.7475/kjan.2015.27.3.337
- [17] D. Beck & R. Srivastava. (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 [18] E. Y. Yeom. (2017).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320-330.
DOI : 10.5392/JKCA.2017.17.04.320
- [19] H. K. Lee. (2013).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i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3(5), 827-833.
DOI : 10.13065/jksdh.2013.13.05.827.
- [20] Y. S. Im, J. H. Kim & H. J. Kwon. (2016). Relationships among bullying in workplace, burnou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Korean physician assistant nurs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2), 703-713.
DOI : 10.5392/JKCA.2016.16.02.703
- [21] M. H. Nam & M. R. Lee. (2016).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Self-esteem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Identity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4), 527-536.
DOI : 10.5977/jkasne.2016.22.4.527
- [22] M. H. Nam & H. O. Kim. (2016). Re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 263-273.
DOI : 10.14400/JDC.2016.14.1.263
- [23] E. Y. Yeom. (2017). Awareness of Emotional Lab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Graduation Yea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177-189.
DOI : 10.5762/KAIS.2017.18.5.177
- [24] S. Y. Kang. (2019).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Resilience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Emotional Lab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8), 181-198.
DOI : 10.22251/jlcci.2019.19.8.181
- [25] M. J. Shin & Y. E. Chun. (2018).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19-32.
DOI : 10.15207/JKCS.2018.9.2.019
- [26] K. H. Baek & M. O. Cho. (2020).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63-371.
DOI : 10.14400/JDC.2020.18.6.363
- [27] H. H. Min. (2016). Influencing Factors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7(1), 39-47.
DOI : 10.13065/jksdh.2017.17.01.39
- [28] S. K. Kim & Y. S. Jung. (2010).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during clinical practices and stress coping styl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0(5), 887-895.
- [29] N. Y. Lee, S. H. Kim & Y. S. Kim. (2016).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Clinical Practice Stres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8(3), 619-629.
DOI : 10.13000/JFMSE.2016.28.3.619
- [30] E. K. Jung. (2016).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16(1), 53-59.
DOI : 10.13065/jksdh.2016.16.01.53

이 미 라(Mi-Ra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단국대학교 구강보건학과 석사
- 2012년 2월 : 단국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 치위생과 교수

- 관심분야 : 치위생학, 구강보건학, 치과재료학, 융합
- E-Mail : lmr3500@hanmail.net